

아쿠아리움 전시관 부분 폐쇄 비난

조직위 '아쿠아 포리스트' 18일째 휴관

정체 구간 관람객 동선 줄이기 '꼼수'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조직위가 관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쿠아리움의 일부 전시관을 폐쇄하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사고 있다.

한정된 관람 시간 안에 더욱 많은 관람객을 받기 위해 아쿠아리움 일부 전시관의 문을 아래에 닫아버린 것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6일 "박람회장 아쿠아리움 3개 전시관 중 하나인 '아쿠아 포리스트'의 문을 지난달 20일 닫아 18일째 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쿠아리움은 '마린 라이프' '오션 라이프' '아쿠아 포리스트' 등 3개 전시실로 꾸며졌다. 문을 닫은 아쿠아

포리스트에는 열대 정글 형태로 꾸며져 있고, 닥터피쉬와 열대어 등 50여 종의 물고기가 들어 있다.

또 유유히 물 속을 유영하는 해파리 등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어종이 많다.

하지만 아쿠아 포리스트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작은 방 형태의 전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동선이 복잡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아 관람객들이 오래 머무르는 '상습 정체 구간'이었다.

아쿠아리움을 보려는 관람객이 많고, 줄을 서는 과정에 민원도 잇따라 조직위가 아래에 아쿠아 포리스트를 폐쇄한 것이다.

전시관 폐쇄로 관람 동선이 짧아지

자, 아쿠아리움 수용 관람객 1만7000명 보다 70% 가량 많은 2만8000명씩을 입장시킬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 조직위가 아무런 안내도 없이 무턱대고 전시관을 폐쇄 시켰고, 뒤에 "관람객이 수조 안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이라며 관람객 탓을 하면서 불거졌다.

6일 아쿠아리움을 찾은 김의태(3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관객을 더 받았다고 영화의 한 부분을 통편집해 상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 문을 닫아 놓고는 관람객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아쿠아 포리스트 폐쇄는 원활한 관람객 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일"면서 "이 전시관 문을 닫은 뒤 더욱 많은 관람객이 아쿠아리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됐고, 관련 민원도 줄었다"고 해명했다.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아쿠아리움에서 관람객들이 폐쇄된 전시관 문을 보며 머뭇거리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

조직위, 전용데스크 운영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내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판매점 대부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Tax Re-

fund)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조직위는 또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 후 사후환급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관제출용 전표를 발행해주는 외국인전용 환금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사후환급 전용데스크는 국제관 A동 2층에 있는 '해외참가관리센터'에 설치됐고,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면세가격으로 살 수 있어 쇼핑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점은 별도의 개인 프로그램 없이 고객 유인, 구매 촉진 및 소비확대가 기대된다.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아쿠아리움에서 관람객들이 폐쇄된 전시관 문을 보며 머뭇거리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한국 수산과학회 공동학술대회(오전 9시·컨퍼런스홀)
△국가의 날·방글라데시(오전 10시·엑스포홀)
△해상도 '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특별기획공연 '비틀끼끼비'(천막극장·오전 10시 20분)
△특별기획공연 '전통한례 재현'(전통미당·오전 11시 30분)
△수상공연페스티벌 '비트'(해상무대·오전 11시)
△수상공연페스티벌 '오션블라스티파비'(해상무대·오후 7시 30분)
△DJ쇼(해상무대·밤 10시)

△아제의 관람객 수=4만8604명(이하 6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125만7928명

여수서 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박람회 성공 개최 성명서 발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여수에 모여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순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71명 등 관계자 140여명은 7일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 엠플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연설회의를 연다.

이를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설회의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박람회를 관람하고, 전국 상의 실적 평가 우수 상공회의소 표창 등의 행사를 갖는다.

또 7일 오후에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상가빌딩매매)

* 서구 쌍촌동 상무2지구 상가빌딩
대지 104평 건평 310평

* 남구 친일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남구 월산동 상가주택
대지 105평 건평 185평

* 북구 신안동 전대정동부 상가빌딩
대지 98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암동 동강대교동부 월풀
대지 71평 건평 98평 밖 15실

* 북구 삼복동 식당건물
면적 975평(식당및주차장)

* 광신구 수원동 상가주택
대지 119평 건평 149평

* 광신구 수원동 상가빌딩
대지 1741평 건평 약 4000평

* 니주시 대봉동 동신내구군 상기주택
대지 97평 건평 130평

* 니주시 남내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평 700평

* 서구 삼정구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873평

* 서구 삼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04평 건평 1415평

* 서구 삼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05평 건평 884평

모든건물 현 상태 좋!! 일대수익 보장!!

광고물건(토지매매)

* 삼무지구 운천1동 4거리 부근
대지 약 1000평 매매

* 서구 서천동 제1종반주거지역
대지 948평

* 북구 두암동 전통상가지역 대지 500평

* 광신구 상정동 대지 500평

* 광신구 송신유길지 부근 대지 1010평

* 광신구 수원동
대지 10,737평 임대수익, 자연녹지

* 장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약 500평 제1종반주거지역

* 담양군 대덕면 송곡리
대지 5000평 임대수익, 보전관리지역

* 니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3200평 임대수익, 자연녹지

* 니주시 월곡면 월곡리
대지 1900평 계획관리지역

양산동 원룸용 토지 매각

【지 목】

대 지

【면 적】

692㎡(209.7평)

【용도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추천 용도】

원룸, 단독주택 적합

【위 치】

동림 IC 5분거리

첨단2지구 인근

【특 징】

남향의 직사각형

토지로 활용도 우수

【매도가격】

170만원/평

【연락처】

010-2067-7103(주인직접)

956-6660 010-2139-6255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쌓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네리)

북 전투기 개성까지 남하 위협비행

"하루 2~3차례 전술조치선 접근"

북한 공군의 수호이 전투기(Su-25)가 지난 5일 개성 상공까지 남하해 위협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6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북한의 Su-25로 추정되는 전투기 1대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2~3차례 위협비행한 뒤 돌아갔다"면서 "위협 비행시간은 불과 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북한 전투기가 올해 들어 TAL을 넘은 것이나 개성 상공까지 도달해 위협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우리 공군은 북한 전투기의 위협비행에 대응해 KF-16 2대와 F-5 2대

등 전투기 4대를 즉각 대응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전투기의 위협비행 의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추가적인 공중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북한 전투기들의 비행 횟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5월 중순 이후 북한 전투기들의 출격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황해도 태안 비행장 등에서 많게는 하루 50여 회 가량 출격하고 이 가운데 2~3차례는 TAL 인근까지 남하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수세계박람회·국제

아쿠아리움 전시관 부분 폐쇄 비난

조직위 '아쿠아 포리스트' 18일째 휴관

정체 구간 관람객 동선 줄이기 '꼼수'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조직위가 관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쿠아리움의 일부 전시관을 폐쇄하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사고 있다.

한정된 관람 시간 안에 더욱 많은 관람객을 받기 위해 아쿠아리움 일부 전시관의 문을 아래에 닫아버린 것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6일 "박람회장 아쿠아리움 3개 전시관 중 하나인 '아쿠아 포리스트'의 문을 지난달 20일 닫아 18일째 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쿠아리움은 '마린 라이프' '오션 라이프' '아쿠아 포리스트' 등 3개 전시실로 꾸며졌다. 문을 닫은 아쿠아

포리스트에는 열대 정글 형태로 꾸며져 있고